

서울당너 초등학교

6학년 7반 조원경

63번

2013년 5월 12일 (일요일)

날씨 :

집에 있으면 땀이
날 정도로 덥다..

제목 : 지금은 오전 12:이분... 자꾸

카톡이온다. 툭툭툭~ 시그리워서 내 핸드폰을 보았다.
 내 친구 최현준이 카톡테터를... 이런!!! ㅋㅋㅋ만보
 내는 최... 하지만 봐주지~ 음. 오늘을 최현준 생일
 이기 땀에 봐준다~ 난이만 졸려서 자야겠다는
 말만 남기고 잤다. 임야음나 또 지금은 오전 9시30분
 늦잠을 잤다... 오늘은 3시에 약속이 있다. 우리반
 친구랑 만나서 놀이터에서(?) 놀기로 했는데...
 자꾸 재미있겠다. 공부는 해야 되는데 핸드폰
 에서 툭이 자꾸 오니까 핸드폰을 쓸 적 가져가서
 입까 몰래 툭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그걸 보고
 그만해!!! 라고 소리치셨다. 거기 우왕 못됐어! 9시가
 얼른니가 배가고프다. 냉장고를 아무리 열었다
 달았다해도 음식은 왜 안찰까? 라는 생각이...
 자꾸만 먹을 반찬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굶어야
 했다... 그때 동안 또 툭을... 지금은 12:00시 아버지가
 내시더니 한손에 한가득을 들고 오셨다. 무엇이길래...
 두두두두 두... 헉헉 아버지 점심으로 먹을 빵을
 들고 왔다. 아이 좋아!!! 빵을 대먹고 머리를 감고
 말리고 친구들이랑 3시에 약속이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툭이 왔다 그런 내 친구가 보내 툭이었다.
 000! 윤정아 우리 2시 30분에 만날래? 라고 왔다.

뒷장 →